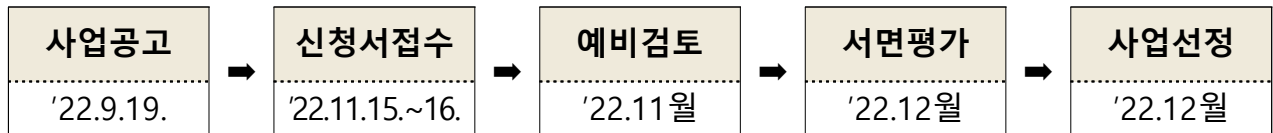


배포 일시	2022. 9. 16.(금)		
담당 부서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심재생과	책임자	과 장 유선희 (044-201-4928)
		담당자	사무관 신동하 (044-201-4932) 전문위원 조상제 (044-201-4934)
보도일시	2022년 9월 19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9. 18.(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 '23년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공모 - 안심보행·재난경보 등 체감도 높은 스마트기술로 지역문제 해결 기대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도시재생사업지의 쇠퇴·노후지역을 대상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23년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접수기간은 11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이며,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 등을 거쳐 12월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 <선정절차 및 일정(안)>



-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재생사업과 연계한 스마트 서비스를 구축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 '20년도부터 매년 공모를 통해 현재까지 총 44곳을 선정\*하였으며, 저비용-고효율의 주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으로 인프라가 부족한 취약 지역의 문제 해결 및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거두고 있다.

\* '20년도 16곳, '21년도 15곳, '22년도 13곳 선정

○ 이번 공모를 통해 총 15곳 내외의 사업지를 선정하여 사업지당 최대 5억 원의 국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 지자체는 도시재생사업의 매칭 비율에 따라 사업비의 40~60% 부담

□ 주민, 민간기업 등의 참여에 기반한 지자체 주도의 지역현안을 발굴하고, 스마트기술 선정 등의 스마트솔루션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에서 운영중인 서버와 연계하거나 민간참여가 가능한 지속가능한 운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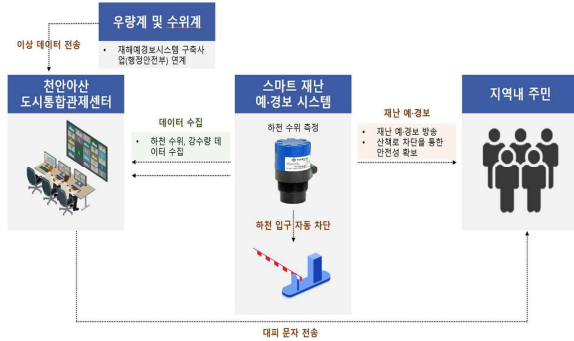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김상석 단장은 “스마트서비스는 신규 도시 뿐만 아니라 쇠퇴·노후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하다” 면서,

○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스마트 서비스를 적극 발굴해 주기를 바란다” 라고 당부하였다.

□ 한편, 23년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www.city.go.kr)에 게시된 공고문과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① 안전·소방 : 스마트 재난 예·경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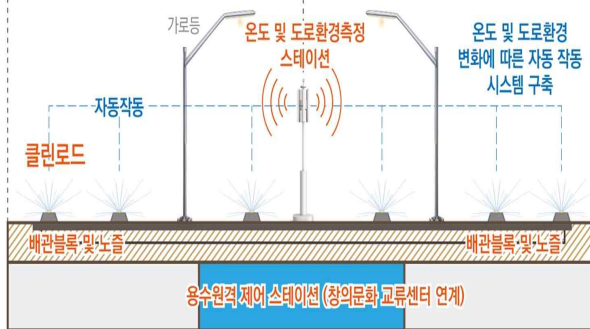
스마트 예·경보 서비스는 하천 수위계를 통해 수위 상승 시 하천 입구를 자동으로 차단하여 안전성을 확보한다. 또한 수집된 수위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난 발생 사전 예측으로 재난 예·경보 방송을 송출하고, 저지대 거주 주민에게 문자를 전송하여 신속한 대피를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② 교통 : 스마트 안심보행



기존 교통 시설물에 지능형 CCTV, 속도 위반 경고장치 등을 구축한다. 과속차량, 사각지대 보행자 접근정보 등을 전광판에 표출하여 운전자의 안전한 운행을 유도한다. 음성 안내장치, 횡단보도 집중조명 등을 통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비상벨 등 방범 장치를 결합하여 범죄예방 효과도 기대된다.

③ 에너지·환경 : 스마트 클린로드



스마트 클린로드는 온도 및 습도를 측정하는 스테이션을 설치하여 환경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도로 살수장치가 작동되어 열섬 현상을 완화한다. 살수차에 비해 살수 주기가 단축되고, 연간 상시 운영이 가능하여 미세먼지 등 도로청소가 필요한 경우 등에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④ 생활·복지 : 스마트 쉼터



산책로 인근에 미세먼지 에어돔, 디지털 사이니지, 공공와이파이, 온열벤치 등 다양한 스마트기술이 결합된 스마트 쉼터를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이 모여 야외활동을 하며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어울림 공간으로 운영한다.